

『東醫壽世保元』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²韓醫學古典研究所
辛相元^{1, 2} · 丁彰炫^{1, 2} · 白裕相^{1, 2} · 張祐彰^{1*}

A Theoretical Study on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氣液 機轉) concept of Taeumin(太陰人) in *Dongyisusebowon*

Shin Sang-won^{1, 2} · Jeong Chang-hyun^{1, 2} · Baik You-sang^{1, 2} · Jang Woo-chang^{1*}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In relation to Qi and Humor, the paper makes a new suggestion of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The paper's objective i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with an aim of providing useful insights on understanding the symptoms of illness displayed by Taeumin..

Methods : A number of materials from Lee Je Ma's *Dongyisusebowon*, *Dongyisusebowon·sasangchobonkwon*, and texts within *Dongmuyogo* that deal in Qi and Humor will be reviewed.

Results : Along with the Mechanism of Water and Food,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sustains life activities. In more detail,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can be considered as a mechanism that takes a more active role in controlling the elements that composes the body.

Conclusions : Through a basic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the paper pondered the possibility of Taeumin's symptoms of illness. Based on this result, future theoretical studies on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should lead to the research of Taeumin's symptoms of illness.

Key Words : *Dongyisusebowon*, Four-Constitution Medicine, Qi and Humor, Taeumin, Lee Je Ma

I. 序 論

* Corresponding Author : Jang Woo-ch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02-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Received(31 January 2017), Revised(15 February 2017).

이제마에 의해 시작된 四象醫學에서 太陰人 병증

Accepted(16 February 2017)

본 연구는 2012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120747)

의 기술은 少陰人, 少陽人 병증의 기술에 비하여 혁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太陰人은 전체 四象人 중 수적으로 최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太陰人 병증론의 病理를 이해하고 임상적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太陰人 병증과 病理 機轉에 대한 이제마의 서술은 간략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쉽지 않은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太陰人 病證 연구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太陰人 병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太陰人 병증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마가 四象醫學을 구성한 원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太陰人 病證 자체가 이제마의 의학적 관점에 의하여 구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란 이제마의 의학적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제마는 「四端論」을 통해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¹⁾이라고 하여 ‘氣液’과 ‘水穀’이 운영되는 機轉을 중심으로 한 이론 체계가 존재함을 밝혀 인체관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肝肺와 관련된 ‘氣液’의 체계가 太陰人, 太陽人의 생리와 病理를 설명하는 데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학계에서도 太陰人 병증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四端論」에 제시된 ‘氣液’ 개념을 통해 太陰人 병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氣液’ 병기를 설정하는 문제도 또한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東醫壽世保元』의 서술 중 ‘氣液’의 개념과 ‘氣液’이 운용되는 체계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으며, 더구나 氣液 개념을 활용한 병증 분석의 사례도 크게 부족하다.

학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氣液’ 개념을 직접적으로 病理 해석 도구로 활용하여 병증을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氣液之氣病證’, ‘氣液 代謝’와 같은 개념²⁾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개념들에는 ‘氣液’을 통해 병증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송일병의 연구들³⁾⁴⁾⁵⁾⁶⁾이 있는데, 그는 ‘氣液之氣病證’과 ‘水穀之氣病證’이라는 양 방면의 병리를 확정하고 각각을 太陰人·太陽人 병증과 少陰人·少陽人 병증의 속성으로 개괄함으로써 氣液 개념을 바탕으로 太陰人 병증의 분류에 주력한 선구적인 연구자이다. 이준희 등의 연구⁷⁾에서는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문제의식 및 방법론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송일병의 ‘氣液之氣病證’에 대한 문제를 계승하여 이를 통해 太陰人의 병증을 논하고자, 「臟腑

- 2) ‘氣液之氣’, ‘氣液之氣病證’, ‘氣液 代謝’와 같은 용어들은 송일병에 의하여 학계에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氣液 代謝’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이준희의 연구가 있다.
- 3) 송일병.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 1993.
- 4) 송일병. 四象人病證藥理의 成立過程과 그 運營精神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6. 8(1).
- 5) 송일병.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8. 10(2).
“水穀之氣와 氣液之氣로 병증을 설명하는데 脾胃의 大小로 결정되는 少陰人과 少陽人은 水穀之氣 장으로 병증이 발생하며 肝肺의 大小로 결정되는 太陰人과 太陽人은 氣液之氣 장으로 병증이 발생한다. 이러한 四象人 病證藥理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氣液之氣病證의 인식은 사상의학의 結晶이라고도 할 수 있다.”
- 6) 송일병.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이제마의 치료의학적 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 7) 이준희, 이의주, 고병희.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근거한 氣液代謝와 太陰人 病理病證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12. 24(4). p.5.
“呼散과 吸聚의 氣液 대사의 의미는 「臟腑論」에 기반하여 설정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太陰人, 太陽人의 病理와 病證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呼散과 吸聚 개념의 구체화된 이론의 제시는 『東醫壽世保元』상의 기술이 매우 簡易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太陰太陽人 病證을 해석하여 나가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이에 太陰太陽人 病理와 病證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臟腑論」에 기반한 생리구도, 즉 呼散과 吸聚 氣液대사에 대한 구체적 의미 제시가 필요하다.”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p.731-732.

論」에 나타난 ‘氣液’ 개념에 대해 논하고 이를 太陰人 表裏 병증론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첫째, 현재 ‘氣液’의 개념이나 ‘氣液’을 비롯한 관련 개념들을 포괄한 계통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결과는 많지 않으며, 주로 病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구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둘째, 이제마의 관점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제마의 문헌에 나타난 ‘氣液’ 관련 언급에 대한 검토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병증 전반에 대한 연구가 궁극적인 목표인 것은 불변의 사실이나, 현재는 이를 위한 기초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氣液’이 운용되는 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太陰人 병증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氣液이 운용되는 機轉’에 대한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을 것이며, 이것이 太陰人 병증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氣液 機轉’이라는 용어를 제안⁸⁾하고, 이것의 개념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이제마의 문헌에서 나타난 ‘氣液’과 관련된 서술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관련 서술은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⁹⁾을 비롯하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⁰⁾¹¹⁾, 『東武遺稿』¹²⁾¹³⁾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을 주요 대상

문헌으로 삼아 고찰할 것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水穀-氣液 機轉이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臟腑論」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체로 이제마의 문헌의 특성은 전체 분량이 많지 않으며 서술도 짧고 단정적인 편이다. 한편으로는 서술이 짧은 만큼 글을 구성할 때 매 문자마다 풍부한 함의를 갖도록 심사숙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에 나타난 字句의 의미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含意를 추출하고, 이를 전체적 맥락으로 연계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II. 本 論

1. ‘氣液 機轉’ 개념 설정의 필요성

‘氣液’은 일개의 개념이지만, 향후 고찰할 이제마의 서술을 살펴보면 ‘氣液’은 단순히 일개 개념의 단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결부된 다수의 개념들과 함께 생명 활동의 열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체를 구성하는 일개 질적 요소의 수준을 넘어, 생명 활동을 구현시키는 하나의 機轉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단적으로 ‘氣液’에 대한 서술이 『東醫壽世保元』에서 原論의 지위를 차지하는 「四端論」에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와 같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독창적인 인간관을 제시하고 이를 의학적 영역에 적용한 이제마의 사상적 특징에 비추어 본다면, ‘氣液’을 단순히 병리 기술의 객체로 인식하기에 앞서, 그의 인간관을 제시하는 단계에서부터 ‘몸’을 구성하는 기초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마의 ‘氣液’은 각종 유관 개념들과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관한 용어들로는 주체와 작용에 해당하는 ‘肺肝’, ‘呼吸’, 그리고 공간을 말하는 ‘三焦’, 유사 용어인 ‘氣道’가 있으며, ‘肺肝’의 작용을 설명하는 ‘外御’, ‘四散之讓像’과 ‘呼吸’의 이치를 설명하는 ‘應對’, ‘致

것으로서 手寫本으로 전해오다가 1966년 7월 북한 보건성 동의간부양성소 사상반 명의로 謄寫版으로 간행된 것이다.”

8) 이에 대해서는 本論의 서두에서 논할 것이다.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10)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과주. 집문당. 2005.

11) 이제마가 사상의학을 창안하는 과정에서 東醫壽世保元보다 먼저 저술한 책으로 사상의학에 대한 이제마의 초기 구상을 엿볼 수 있다.

12)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1999.

13) 이기복,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의학 사상과 실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65.

“이 판본은 이제마가 남긴 원고를 후에 제자들이 편찬한

來' 등의 용어들이 파생된다. 이처럼 일련의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계통 전체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고찰해야만 이제마가 '氣液'을 제시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개 '氣液' 개념보다도 그것이 대표하고 있는 계통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고찰하는 것이 이제마가 제시한 '氣液'과 관련된 이론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련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의 계통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적합한 술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에 '機轉(mechanism)'이라는 술어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機轉'은 어떠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과적 과정의 실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氣液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일련의 생명 활동 과정을 칭하는 데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氣液'과 관련된 계통을 '氣液 機轉'으로 지칭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氣液 機轉'의 반면에 존재하는 '水穀'도 하나의 '機轉'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 '水穀 機轉'으로 칭할 것이며,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두 체계를 '水穀-氣液 機轉'으로 칭하고자 한다.

'水穀-氣液 機轉'을 제안함에 있어서 기존의 '代謝(metabolism)'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대체로 '代謝(metabolism)¹⁴⁾'는 인체에 존재하는 물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지칭한다. 실제로 水穀 代謝나 氣液 代謝로 지칭된 연구 결과들은 水穀과 氣液을 '물질'과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차원에서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학계에서는 '氣液之氣病證'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氣液과 관련된 병리 경향성을 지칭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氣液에 관련된 계통의 목적을 밝히고 생리적인 방면의 機轉을 인식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해 '水穀-氣液 機轉'의 개념은 인간의 생

명 활동의 兩大 목표를 구성하는 차원¹⁵⁾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정신적, 물리적 층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생리적 機轉을 구성하며 나아가 병증의 機轉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인간의 性命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의학적 논의를 이끌어낸 이제마의 관점에 근접해야 그의 병증관 역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층차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水穀-氣液 機轉'이라는 개념을 통해 '水穀'과 '氣液'의 代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2. 水穀-氣液 機轉 개념의 형성

『東醫壽世保元』에는 '氣液'에 대한 간결하고 부연된 개념 정의나 설명이 적어, 이 개념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가지고 도입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마가 설정한 '氣液'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찰의 범주를 넓혀 신축본 『東醫壽世保元』의 이전 시기 저술들에 산재된 단서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東醫壽世保元』의 모체에 해당하는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¹⁶⁾, 『東武遺稿』에서 이러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草本卷』에 나타난 水穀-氣液 機轉 개념

『草本卷』 「原人第五統」에 이제마가 구상한 水穀-氣液 시스템에 대한 초발적 관념이 나타난다. 肺脾肝腎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통해 추상하여 각 臟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내는 작업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肺脾肝腎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水穀-氣液 시스템에 대한 구상의 기초가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이것에 기반한 水穀-氣液 시스템 역시 기존 의학의 생리, 病理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4) 네이버 지식백과. "대사[代謝, metabolism, Stoffwechsel]"(세화 편집부. 화학대사전. 과주. 세화. 2001. [cited at 2017 Jan 2]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81460&cid=42419&categoryId=42419>)

"代謝[代謝, metabolism, Stoffwechsel] 생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분해 및 합성에 관한 화학 변화를 일괄해서 代謝라고 한다."

15) 水穀-氣液 機轉이 각각 추구하는 목표를 '內修', '外御'와 같이 제시하여, 해당 機轉이 인간의 삶의 영역 전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16) 이하 『草本卷』

Table 1. Abstraction from the Shape of Four visceras in 『Chobongwon(草本卷)』(『草本卷』의 四臟 體形에 따른 抽象)

臟	체형	임무	목표
脾-腎	有質而無葉	掌內修之柄	全其專一之穀子
肝-肺	有葉而無質	持外御之勢	派其四散之議像

(1) 水穀-氣液 機轉의 주체인 肺脾肝腎에 대한 설명

○ 脾腎之體形, 有質而無葉, 掌內修之柄者, 宜乎全其專一之穀子也. 肝肺之體形, 有葉而無質, 持外御之勢者, 宜乎派其四散之議像也.¹⁷⁾

『草本卷』 「原人·第五統」

이 문장은 “脾腎之體形, 有質而無葉, 掌內修之柄者, 宜乎全其專一之穀子也.”와 “肝肺之體形, 有葉而無質, 持外御之勢者, 宜乎派其四散之議像也.”의 두 절의 對로 이루어져 있다. 對句 형식으로 되어 있는 두 절을 비교해보면 첫째, 體形을 비교하였고, 둘째, 體形으로부터 추상되는 각 쌍의 임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셋째, 그 임무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우선 “脾腎之體形”, “肝肺之體形”과 같이 해부학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추상하여 臟에 부여된 기능을 유추했다. 肺脾肝腎의 體形을 주로 質의 形狀을 나타내는 臟과 葉의 形狀을 나타내는 臟으로 구분하였다. 質로 이루어진 脾腎과 葉으로 이루어진 肝肺을 각각 유비적으로 짝지우고, 각각의 쌍이 동류의 작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각 쌍이 수행하는 두 가지 계열의 작용을 대비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臟에 대한 추상법은 기존 의학 전통에서는 명확히 언급된 바 없는 방식이다.¹⁸⁾

脾腎의 體形은 ‘有質而無葉’으로 추상하였다. ‘有

質’은 脾腎의 덩어리진 형태를 표현한 것인데, 내실 있게 채워져 있는 형상을 통해 그 작용도 질적인 차원에서 충만 시키는 역할을 비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肝肺의 體形을 ‘有葉而無質’으로 추상하였다. ‘有葉’은 나무의 잎의 모습을 취하여 추상한 것이다. 나무의 잎은 때로 낫다가 지기도 하면서 나무의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며, 생리적으로는 외부로 수액이나 공기를 뺏어내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형상에 따라 ‘有葉’은 외부로 드러내고 교류하는 역할을 비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⁹⁾

그리고 脾腎과 肝肺의 각 쌍이 맡고 있는 임무²⁰⁾를 “掌內修之柄者”와 “持外御之勢者”로 표현하였는데, 각각이 수행하는 소임을 ‘內修’와 ‘外御’로 內外로 대비하고 있다.

“掌內修之柄者”의 ‘內修’는 내면의 구조를 닦고 정리하여 잘 갖추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柄²¹⁾’은 ‘자루’로부터 연역되어 ‘권력’을 의미하는데, 특히 인 사권을 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掌內修之柄者”는 脾腎이 내면의 구조를 닦고 정리하여 잘 갖추도록 조직하는 권한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內修’에는 본래 물건을 갈고 닦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求道의 의미가 남아 있는데, 내부 구조의 완비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과주. 집문당. 2005. p.141.

“여기서 葉(肝과 肺)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어 외부의 기운을 관장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고, 質(脾와 腎)은 속에 있는 무엇을 관장하는 중심 역할러를 하는 것이므로 안으로 모아서 보호하려고 하는 껍데기와 같다는 의미이다.”

20) ‘掌’과 ‘持’는 모두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者’는 모종의 역할을 맡은 사람임을 표현한다.

21)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1527. “③ 권세 병(權力). 권력.”

17)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과주. 집문당. 2005. p.140.

18) 臟에 대한 추상은 기존 의학 전통에서도 ‘藏象’이라는 용어가 존재함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연역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방법론보다는 내용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持外御之勢者”의 ‘外御²²⁾’는 외면의 모습을 자신의 방식대로 제어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勢²³⁾’는 ‘기세’, ‘세력’을 말하는데 ‘外御’가 ‘기세’와 같은 흐름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持外御之勢者”는 肝肺가 외부의 사물을 자신의 방식대로 제어하는 세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外御’는 본래 소나 말 등을 부리거나 길들이는 의미가 있는데, 외부의 통제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정교하고 정련된 행위를 추구하여 탁월함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臟에 주어질 임무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데, “全其專一之穀子”와 “派其四散之議像”으로 표현하여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술하였다. ‘專一之穀子’와 ‘四散之議像’을 비교해보면 ‘一’과 ‘四’가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專一’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동일한 機轉을 말하며, ‘四散’은 이제마의 일반적인 논법에 따라자면 四象으로 분과되는 機轉을 말한다.

脾胃은 體形이 “全其專一之穀子”에 마땅하다고 했다. ‘穀子’는 ‘몸’, ‘신체’²⁴⁾²⁵⁾를 의미하는데, ‘軀殼’과 유사하다. ‘穀子’와 ‘軀殼’이라는 단어는 모두 ‘精神’의 반대쌍으로 사용되므로 그 의미가 정신적인 작용을 제외한 ‘질적인 몸’에 한정된다. ‘질적인 몸’은 ‘專一’의 의미와 결합되어, 체질을 막론하고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체 구조의 바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이 일반적으로 오장육부와 두수요족 등의 동일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이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宜乎全其專一之穀子”는 누구나 동일한 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온전히 구비하여 完整性을 유지하는 작용을 수행하기에 脾胃이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肝肺는 體形이 “派其四散之議像”에 마땅하다고 했는데, ‘네 가지로 분산되는各自的 마땅한 氣像을 분과시키는 역할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議像’의 ‘議²⁶⁾’는 ‘옳은 것을 가리고자 논의하는 것’이며 그 논의의 결과 ‘알맞은’ 것을 찾아내는 뜻이 있고, ‘像²⁷⁾’은 ‘모양’이므로 ‘議像’은 ‘외부로 드러나는 알맞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외부로 드러나는 알맞은 모습’은 ‘四散’의 의미와 결합되어 四象으로 분산되어 외부로 구현되는 알맞은 모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의 이목구비의 구성은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변이에 따라 서로 다른 ‘相’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이제마는 「四象人辨證論」에서 四象人에서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을 각각 설명하면서 ‘體形氣像’, 즉 ‘像’으로 표현하였다.²⁸⁾²⁹⁾ 그러므로 “派其四散之議像”은 사람에게 따라 서로 다른 알맞은 모습을 분과시켜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수행하기에 肝肺가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專一之穀子’와 ‘四散之議像’의 대비는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人稟臟理, 有四不同”³⁰⁾과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³¹⁾, “太少陰陽之

22) ‘御’는 짐승을 부리는 것을 의미한다. 짐승을 뜻대로 부리듯 事物을 의지대로 통제,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1075. “① 어거할 어(馭車馬). ㉠ 말이나 수레를 몰다. … ③ 다스릴 어(治也). 통치하다.”

23)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418. “① 세력 세(勢力). ㉠ 남을 제어(制御)하는 힘. 권력(勳力). 권세(權勢). 권위(權威).”

24)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1677. “【穀子】(각자) 몸. 신체. 정신(精神)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5) 박성식은 “穀子是 ‘껍데기’, ‘케이스’를 뜻하고,”라고 하였고 ‘껍데기’로 번역하였다. 실제로 그러한 뜻이 ‘몸’의 뜻으로 연결된 것이지만, ‘穀’은 『草本卷』 내에서도 수차례 ‘軀殼’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용례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몸’ 또는 ‘신체’의 뜻으로 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과주. 집문당. 2005. p.140.)

26) 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085. “② 모의할 의(謀議). 의논하다.”, “④ 알맞을 의(宜也). 적합하다.”

27) 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256. “① 모양 상(形象). 물건의 형상(形狀).”

2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28. “太陽人體形氣像, 腦顛之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顛之起勢, 孤弱. 少陰人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四象人辨證論)

29) 다만, 議像은 ‘알맞은 모습’으로서 이와 같은 氣像이 시의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3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7.

3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Table 2. Spaces of 'Water-Food mechanism' & 'Qi-Humor mechanism' and movement of 'Water-Food & Qi-Humor'(水穀-氣液 機轉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水穀-氣液의 운동)

水穀-氣液	공간	편차	운동양상	방향성
穀道	腸胃	溫冷	交濟	上下
氣道	三焦	虛實	均適	表裏

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所以希天也.”³²⁾라고 한 것과 의미가 유사하다. 臟局의 短長の 변이는 ‘有四’이지만, 그것이 변화하는 원리는 天理로써 ‘有一’하여 ‘大同’하다고 하였는데, 臟局의 短長에 의하여 넷으로 치우쳐 四象인이 분과되는 한편으로는 臟이 변화하는 이치는 한 가지로 동일하다고 한 것이다.³³⁾ 즉, ‘有一’은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을 갖춘 기본적인 구조로서 天理와 같이 무심하고 이성적인 성격을 갖는다. ‘有四’는 四象으로 분과되는 臟局의 編次로서 “聖人所以希天也.”라고 한 것과 같이 인간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2) 穀道, 氣도에 대한 설명

○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 氣道通於三焦, 虛實均適於表裏.³⁴⁾

『草本卷』 「原人·第五統」

이 문장 역시 對句를 이루는 두 절로 되어 있는데,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와 “氣道通於三焦, 虛實均適於表裏.”가 상대되어 穀道와 氣道を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서 穀道の ‘穀’은 水穀이며 氣道の ‘氣’는 氣液의 초기 개념에 해당한다. 水穀-氣液이 몸으로 들어가서 유통되는 공간의 개념을 ‘道’라

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腸胃와 三焦로 水穀-氣液을 대별하는 신체의 공간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穀道는 腸胃로 통해있는데, 上下의 溫氣와 冷氣가 서로 구제한다. 腸胃는 穀道가 실제로 몸에서 유통되는 공간이며 ‘溫氣’와 ‘冷氣’는 水穀에 의하여 발생한 水穀之氣의 양상이다. ‘交濟’는 두 氣가 사귀어 구제한다는 뜻으로, 서로의 성질을 보완하고자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부의 冷氣가 편중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溫氣가 내려와 冷氣의 편중을 구제해야 하는데, 이런 작용을 ‘交濟’라고 하였으니 ‘水火既濟’의 의미와 상통한다. 종적인 腸胃의 구조에 의해 水穀之氣의 溫冷이 발생하므로 上下로의 운동 양상이 나타난다.

즉, 이는 水穀 機轉을 개괄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水穀 機轉은 공간적으로 腸胃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水穀이 腸胃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水穀之氣의 溫冷에 의하여 上下의 陰陽 升降의 운동이 발생한다. ‘交濟’에는 기존 의학 전통의 水火升降 개념이 나타나 있는데, 그 원인을 水穀之氣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溫冷의 氣의 운동으로 보고 있다.

氣道는 三焦로 통해있는데, 表裏의 虛實이 고루 알맞도록 한다. 여기에서의 三焦는 氣道와 연관지은 것을 볼 때 단순한 인체의 공간 분할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元氣와 水液이 流通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적용한 것이다. 『難經』³⁵⁾과 『素問』³⁶⁾에서 출발한 기존 의학 전통의 三焦의

서울. 集文堂. 2006. p.638.

3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8.

33) 한동식은 ‘有一’을 생명력의 근원이 동일한 점을 말한 것으로 보고 “四象인의 臟腑에 長短이 있는바 人間の 生命力인 ‘一點’으로 돌아간다는 면에서 볼 때에는 臟局의 長短과는 별도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한동식 저.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p.63.)

34)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파주. 집문당. 2005. p.142.

35) 滑壽 원저. 윤창열 편역.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293. “三焦所行之俞爲原者, 何也. 然,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藏六府. 原者, 三焦之尊號也, 故所止輒爲原. 五臟六府之有病者, 皆取其原也.”(六十六難)

개념을 이제마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虛實’은 氣液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氣液 분포의 편차를 말하며, ‘均適’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氣液이 裏에서 實하며 表에서 虛한 양상이 나타날 경우, 氣液을 表로 보내는 것이 表裏 虛實을 均適하게 하는 것이다. 三焦라는 비어있는 공간³⁷⁾인데, 氣液은 表裏의 공간에서 虛實이 교대하므로 表裏 사이에서 内外의 방향으로 운동 양상이 나타난다.

즉, 이는 氣液 機轉을 개괄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氣液 機轉은 공간적으로 三焦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氣(氣液)가 三焦로 呼吸됨으로써 氣(氣液)의 虛實이 表裏 사이에서 조절되며 氣의 유통이 일어난다.

(3)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을 각각 수행하는 脾胃-肝肺의 出納-散充

○ 脾以納, 腎以出, 脾胃者, 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 散充氣道之門戶也.³⁸⁾

『草本卷』 「原人·第五統」

이 문장 역시 對句를 이루는 두 절로 되어 있는데, “脾以納, 腎以出, 脾胃者, 出納水穀道之府庫也.”와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 散充氣道之門戶也.”가 대비되어 脾胃와 肝肺의 작용을 대비하였다. 앞서 脾胃-肝肺의 體形으로부터 추론한 두 쌍의 臟의 입무와 목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出納-散充³⁹⁾으로 요약하고, 이것이 穀道와 氣道, 즉 水穀-

氣液을 주재하는 작용임을 명시하여 水穀-氣液 機轉을 종합적으로 개괄하였다.

‘門戶⁴⁰⁾’는 외부와의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으로, 앞에서 “虛實均適於表裏”의 ‘表裏’와 의미가 통한다. ‘출입문’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자연히 ‘開闔’ 및 ‘開閉’의 의미로 연역될 수 있을 것이다.

‘府庫⁴¹⁾’는 양곡을 쌓아두는 곳집을 의미하므로 자연히 水穀을 일시적으로 비축하는 공간을 비유한 것이며, ‘出納’은 水穀이 공간으로 드나듦을 의미한다. 드나드는 것이 곧 ‘出納’이다.

이 문장은 『草本卷』의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정리이다. 水穀道에서는 脾胃이 出納의 작용을 수행하며, 氣道에서는 肝肺가 散充의 작용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水穀道는 水穀 機轉으로, 氣道는 氣液 機轉으로 연결된다. 즉, 水穀 機轉은 脾胃의 出納 작용에 의해 구현되며, 氣液 機轉은 肝肺의 散充 작용에 의해 구현된다.

肺脾胃腎의 體形에 따른 추론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脾胃이 담당하는 水穀道の 出納은 “全其專一之穀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水穀 機轉은 내면을 닦는 것으로, 내적으로 몸을 구성하는 구조의 完整性을 제고하는 의의를 갖는다. 肝肺가 담당하는 氣道の 散充은 “派其四散之議像”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氣液 機轉은 외부를 제어하는 것으로, 외면으로 서로 다른 氣像을 분화시켜 표출하는 의의를 갖는다.

2) 『東武遺稿』에 나타난 呼吸-出納 개념

『東武遺稿』는 이제마가 남긴 원고들을 추려 묶

3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靈蘭秘典論)

37) 허준 지음, 진주표 주석. 新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441. “三焦指腔子而言.”(三焦腑三焦形象)

38)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과주. 집문당. 2005. p.143.

39) 여기에서는 肝肺의 작용에 대해 ‘散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후에 「四端論」에서는 呼吸이라고 하였다. 『草本卷』의 같은 부분에서 “脾胃之運轉, 一引而一縮, 任呼吸之貴者, 宜乎經其終始之貫串也. 脾胃之運轉, 一收而一放, 操唱和之機者, 宜乎緯其緊歇之範圍也.”라고 하여 呼吸 작용은 脾胃이 運轉되는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최종적으로

‘肝肺의 散充’과 ‘肺腎의 呼吸’을 ‘肝肺의 呼吸’으로 정리하게 되기까지 이제마의 내적인 숙고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呼吸은 上焦와 下焦의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肺는 呼吸을 직접 수행하는 臟으로 가장 중요한데, 下焦에서 肺의 짝을 이루는 臟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0)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471. “【門戶】(문호) ① 문짝 ② 드나드는 문. 출입구. ③ 인신하여, 사물의 관건(關鍵)의 비유.”

41)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1004. “【府庫】(부고) 관부(官府)의 창고. 문서나 재물을 넣어 둬.”

었기 때문에 그 원고들의 형성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며, 『東武遺稿』 내의 원고들도 집필된 연대적 순서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水穀-氣液 機轉과 관련된 문장들을 형성 과정에 따라 인과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문장들에 나타나는 관련 개념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四象要目註解」에 나타난 呼吸出納의 개념

肺主呼，呼則必有應對之理，以其直升之衰力，能達事務之欺也。

脾主納，納則必有盈虛之理，以其橫升之怒力，能合交遇之侮也。

肝主吸，吸則必有致來之理，以其放降之喜力，能立黨與之助也。

腎主出，出則必有渴盡之理，以其陷降之樂力，能定居處之保也。⁴²⁾

「四象要目註解」

『東武遺稿』 「四象要目註解」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과 「四端論」의 일부 문장에 대해 이제마가 스스로 註解한 것인데, 上記한 문장은 「性命論」의 “肺達事務，脾合交遇，肝立黨與，腎定居處”에 대한 註解에 해당한다. 「性命論」에서 설정한 人事의 요소들이 肺脾肝腎 각각에 의하여 수행된다고 언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 과정에서 呼吸，出納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東醫壽世保元』 전체의 구도를 살펴보면 「性命論」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이 「臟腑論」을 통해 병증론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 上記 내용은 氣液 機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呼吸出納의 개념이 水穀-氣液 機轉의 呼吸出納의 개념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性命論」 문장에 註解된 肺肝，脾腎의 呼吸，出納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여 水穀-氣液 機轉에 나타나는 呼，吸，出，納 각각의 개별적 의미를 이해할 단

서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肝肺가 수행하는 呼吸의 작용은 氣液 機轉을 주관하는데, 『草本卷』의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呼吸은 議像을 분과시켜 외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肺가 呼하는 작용에 의하여 ‘應對’의 이치가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應對’는 외부에서의 부름에 답하는 것이니, 외부로부터 닥쳐온 질문에 응하여 자신의 생각을 통해 답을 구성하여 대답하는 과정과 같다. 매 순간의 외부의 부름에 성실하게 應對함으로써 事務에서의 발생하는 속임을 꿰뚫어보게 되는 것이다.

肺가 呼하는 작용을 氣液 機轉 안에서 파악해보면, 氣液이 외부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일정한 목적성을 가지게 되어 일련의 흐름을 보이며 외부로 소통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肝이 吸하는 작용에 의하여 ‘致來’의 이치가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致來’는 내부의 필요에 따라 외부의 것을 끌어들이어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인데, 어떠한 하나의 주장⁴³⁾을 옹호하여 주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같다. 이는 외면적으로는 자신이 옹호하고 지지하는 바를 확고하게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여기에 동참하는 黨與의 助力을 얻게 되는 것이다.

肝이 吸하는 작용을 氣液 機轉 안에서 파악해보면, 氣液이 내부의 필요에 따라 모여들어 하나의 중심점을 형성하고 내부로 채워지는 과정에 해당한다.

脾腎이 수행하는 出納의 작용은 水穀 機轉에 속하는데, 『草本卷』의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出納은 몸을 구성하는 구조의 完整性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脾가 納하는 작용에 의하여 ‘盈虛’하는 이치가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盈虛’는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것⁴⁴⁾이다. 비어있는 것을 채운다는 것은 구조적

42)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1999. p.103.

43) ‘應對’에 관해 ‘問答’ 과정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주장’도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주장에 대한 ‘옹호’는 상대방에게는 하나의 ‘질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이끌어 應對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44) 盈虛는 ‘차고 기움’과 ‘빈 것을 채움’으로 모두 해석 가능

으로 낚고 소모되거나 결손되어 質의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을 새롭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작용을 말한다.

腎이 出하는 작용에 의하여 ‘渴盡’의 이치가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渴’은 ‘竭’과 통하여 ‘마르고 다한다’는 뜻이 되어 ‘모두 없어짐’을 의미한다. 모두 없어진다는 것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서 효용이 다하여 낚은 것은 완전히 비워내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出納은 水穀 機轉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水穀을 원활히 유통시킴으로써 水穀之氣를 생산하고 水穀之氣의 升降 운동을 통해 몸에 필요한 구조적 요소⁴⁵⁾들을 충족시키는 질적인 기반에 해당한다.

(2) 기타 篇에 나오는 開闔-出納 개념

肺以開, 肝以闔, 肺肝者, 開闔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之府庫也.⁴⁶⁾

『東武遺稿』 「總論」

『東武遺稿』 「總論」에서는 臟腑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四象 藥物論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臟腑에 대한 설명에서 脾腎과 肺肝의 구별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水穀과 氣液이라는 開闔-出納 작용의 대상은 생략하고 肺肝을 ‘開闔’을 수행하는 것으로, 脾腎을 ‘出納’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開闔’이라고 표현한 것은 ‘門戶’라고 한 비유적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문을 크게 열면[開] 외부로 소통하는 것이 되며, 문을 좁혀 닫으면[闔] 내부를 지키는 것이 된다.

‘開闔’이라는 표현은 인체의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하지만, 병렬 구조로 해석한 應對, 致來, 渴盡과 달리 술목 구조로 해석하였다. 盈虛는 渴盡에 상대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納에 의미와 통하는데, 병렬 구조보다는 술목 구조로 해석하는 경우에 이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45) 기존 의학 전통에서는 營衛, 津液, 精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6)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1999. p.164.

氣液 機轉에 국한된, ‘呼吸’이나 ‘散充’에 비해 소극적인 표현이다. ‘呼吸’과 ‘散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氣液을 ‘外御’하는 양상이 강조되는데 비해, ‘開闔’은 ‘門戶’를 중심으로 표현되어 氣液이라는 대상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

앞서 ‘吸’의 의미를 ‘致來’에 해당함을 설명했는데 ‘오게 만드는 것’의 의미가 강조된 ‘吸’의 의미에 비해, ‘闔’은 문을 닫아 지키는 것이니 ‘옹호하는 행위’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開闔’은 性命 차원에서 논해지는 氣液 機轉의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인체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氣液 代謝에 국한된 의미로 해석된다.⁴⁷⁾

肺之病, 闔氣多而開氣少, 故其藥宜通而不宜塞也. 牛黃, 熊膽, 麝香, 麻黃, 杏仁, 山藥, 桔梗, 黃芩, 皂角之類, 通力有餘, 故肺病之吉藥也. 蕎麥, 葡萄, 木瓜, 黃芪, 甘草之類, 塞力有餘, 故肺病之凶藥也.

肝之病, 開氣多而闔氣少, 故蕎麥, 葡萄, 黃芪, 甘草, 五加皮, 獼猴桃之類, 塞力有餘, 故肝病之吉藥也. 牛黃, 麝香之類, 通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 故官桂附子當歸川芎木香陳皮蓼朮鹿茸紫河車之類, 升力有餘, 故脾病之吉藥也. 石膏, 黃連, 澤瀉, 山茱萸之類, 降力有餘, 故脾病之凶藥也.

腎之病, 升氣多而降氣少, 故地黃黃栢山茱萸枸杞子之類, 降力有餘, 故腎病之吉藥也.

官桂附子蓼茸之類, 升力有餘, 故腎病之凶藥也.⁴⁸⁾

『東武遺稿』 「總論」

상기 내용은 앞의 「總論」을 이어 각 臟이 발병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언급하고 그에 부합하는 약물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肺와 肝의 병은 闔氣와 開氣의 多少로 설명하며, 通力과 塞力의 약성을 통

47) 拙稿에서는 ‘氣液 機轉’을 ‘氣液 代謝’의 의미와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48)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1999. pp.165-166.

Table 3. Action of spleen-kidney-liver/lung in Lee Je-ma's writings.(이제마 著述에 나타난 脾腎-肝肺의 작용)

	『草本卷』	『東武遺稿』 「總論」	『東武遺稿』 「總論」	『東武遺稿』 (無題)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脾腎 (水穀)	出納	出納	升降	出納 (化水穀/汰糟粕)	出納
肝肺 (氣液)	散充	開闔	開闔	開閉 (通神氣/守血液)	呼吸

해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脾와 腎의 병은 降氣와 升氣의 多少로 설명하며, 역시 升力과 降力을 통해 약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병증과 용약의 문제를 논하고 있으므로 물질적 氣液 代謝에 가까워 ‘開闔’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脾腎의 病理 機轉을 升降의 구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과 少陽人 병증론에서는 脾腎局 陰陽氣의 升降을 통해 病理 機轉을 설명⁴⁹⁾하고 있는데, 이러한 升降 개념이 水穀 機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升降’은 水穀의 出納 과정에서 생성된 水穀之氣가 上下로 운동하여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草本卷』에서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라고 말한 것과 같다. ‘升降’은 水穀의 出納 이면에서 일어나는 운동 양상이다.

脾化水穀, 而腎汰糟粕, 脾腎者, 出納之府庫也.

肺通神氣, 肝守血液, 肺肝者, 開閉之門戶也.⁵⁰⁾

『東武遺稿』 (無題)⁵¹⁾

(無題)는 『東武遺稿』에서 제목이 달려 있지 않은 편으로, 상기 내용과 함께 氣味 厚薄에 따른 약

성론이 언급되어 있는데, 상기 내용의 四臟의 속성을 바탕으로 약성론을 간략히 후술하고 있다.

上記 내용에서는 각 臟의 기능을 ‘脾化水穀’, ‘腎汰糟粕’, ‘肺通神氣’, ‘肝守血液’과 같이 구체적인 의학 용어를 통해 표현이 나타난다. 呼吸-出納이 현실적인 水穀-氣液 代謝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을 기술한 것으로 의학적 실용성을 추구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肝肺의 작용을 ‘開閉’로 언급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開闔’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通神氣’는 呼 작용이 실제 氣液 代謝에 적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다. ‘應對’의 이치와 같이 외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氣液이 神을 따라 소통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神은 이제마의 배속에 따르면 肺의 氣液에 해당하는데 현실적인 氣液 代謝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守血液’은 吸 작용이 실제 氣液 代謝에 적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다. ‘致來’의 이치와 같이 내부의 血液을 옹호하여 더욱 내부로 응집되도록 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의 血은 이제마의 배속에 따르면 肝의 氣液에 해당하는데, 현실적인 氣液 代謝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化水穀’은 納 작용이 실제 水穀 代謝에 적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다. 水穀을 수납하여 水穀之氣를 생성하는 과정을 총괄하여 설명한 것이다.

‘汰糟粕’은 出 작용이 실제 水穀 代謝에 적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다. ‘糟粕’은 水穀이 腸胃를 통과하며 氣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水穀 代謝 과정의 산물이다. ‘汰’는 물을 일어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는 것이니, 효용이

49) 少陰人에 대해 “益氣而升陽”, “溫胃而降陰”, 少陽人에 대해 “清裏熱而降表陰” 등을 치료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50)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1999. p.211.

51) 이 글에는 표제가 붙지 않아 있어 ‘(無題)’로 표기하였다.

다한 糟粕을 걸러 내보내는 작용을 말하여 ‘出’을 의미한다.

3. 「東醫壽世保元」의 水穀-氣液 機轉 개념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은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의 原人篇⁵²⁾으로부터 四象人의 病證에 대한 논설로 이어지는 부분에 위치하여, 이 제마의 인간관과 의학관을 연결하는 이론적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臟腑論」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체관에는 인간관과 의학관의 양면적인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서,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을 인체에 구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水穀-氣液 機轉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다.

「臟腑論」의 내용은 크게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으로 개괄된다. 「臟腑論」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四焦에 의한 인체의 공간적 구조의 분할을 제안한 부분이며, 둘째 부분은 水穀 機轉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水穀이 腸胃에서 代謝되어 水穀之氣로 분화하는 機轉과 과정을 논하였다. 셋째 부분은 氣液 機轉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水穀之氣로부터 耳目鼻口, 肺脾肝腎에 의해 津膏油液과 神氣血精이 만들어져 前後 四海의 氣液을 형성하는 과정과 胃脘·胃·小腸·大腸, 頭手腰足이 前後 四海의 氣液을 활용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넷째 부분은 心에 대한 論說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들 중 개론적 성격의 첫 부분과 총괄적 성격의 넷째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서술이다.

「臟腑論」의 첫 부분인 인체의 공간적 구조의 분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⁵³⁾을 살펴보면, 이제마가

인간을 논하는 기본적인 구도인 四象이라는 기틀이 그대로 적용⁵⁴⁾하여, 身形을 四焦로 분할하고 四腑(腸胃), 四臟에 전후면을 배속하여 인체를 관찰하는 일종의 좌표계를 설명하였다.

後面에 肺脾肝腎의 부위를, 前面에 胃脘·胃·小腸·膀胱의 부위를 각각의 순서에 따라 종적으로 배속하였다. 그리고 肺·胃脘, 脾·胃, 肝·小腸, 腎·膀胱의 前後면의 부위를 포함한 영역을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의 횡적 구조로 편성하였다. 여기에서 설정된 부위들은 모두 軀殼, 즉 몸 껍질에 해당하는 부위들이다. 臟腑를 軀殼의 각 부위에 연계함으로써, 내부의 臟腑의 활동 양상이 軀殼의 부위에 반영되도록 하였다.⁵⁵⁾

그러한 취지로 「臟腑論」에서는 ‘海’ 개념을 도입하여 각 부위에 前後 四海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前四海는 舌下, 臆間兩乳, 臍, 前陰毛際之內이고 後四海는 頭腦, 背脊, 腰脊, 膀胱인데, 각 臟腑의 부위와 유사하다. 前後 四海는 氣液의 성쇠가 반영되는 곳으로, 臟腑의 활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臟腑論」에서는 水穀이 소동되는 腸胃와 氣液이 소동되는 三焦 및 四海를 대비시켜 인체에 대한 인식을 구조화 하였는데, 『草本卷』으로부터 이어진 이론적 기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체 구조 설정을 통해 구체화된 水穀-氣液 機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臟腑論」의 水穀 機轉

(1) 水穀의 이동

5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5. “肺部位, 在頤下背上, 胃脘部位, 在頤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臍, 胃部位, 在臍, 故背臍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 故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 謂之下焦.”

54) 김중원, 고병희, 송일병.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0. 2(1). p.93. “四象臟腑論의 구성도 이러한 陰陽論의 四象에 따른 四元構造를 중심으로 하여 그 構成原理도 上下陰陽 偏差에 基礎하고 있다.”

55) 이경애, 박성식, 이원철. 三焦와 東醫壽世保元 四焦의 比較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5. 16(1). p.21. “따라서 四焦의 부위는 內部臟器에 대한 부위적 분할에 있어서 그 해부학적인 위치보다는 기능적인 氣의 발현부위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52) 原人篇이라는 용어로 「性命論」에서부터 「臟腑論」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생리적 특징을 연구한 篇章을 통칭하고자 한다. ‘原人’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草本卷』의 첫 篇의 篇名으로 등장하는데, 「性命論」 ~ 「臟腑論」 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제마는 ‘사람을 究明한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따라 선택하게 되었다.

○ 水穀，自胃脘而入于胃，自胃而入于小腸，自小腸而入于大腸，自大腸而出于肛門者，…… 56)

「臟腑論」

水穀 機轉은 水穀의 정의와 水穀之氣의 발생 과정으로 이원적으로 서술된다. 즉, 水穀과 水穀之氣가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어, 水穀 자체의 代謝 과정과 水穀之氣의 발생 과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해야 한다.

水穀은 胃脘으로부터 胃, 小腸, 大腸을 거쳐 肛門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물질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水穀 機轉에서 水穀은 그 자체가 흡수되어 水穀之氣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腸胃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여 肛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2) 水穀之氣의 발생과 그 機轉

○ …… 水穀之都數，停畜於胃而薰蒸爲熱氣，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清者，上升於胃脘而爲溫氣，涼氣之質重者，下降於大腸而爲寒氣.

○ 胃脘，通於口鼻，故水穀之氣上升也. 大腸，通於肛門，故水穀之氣下降也. 胃之體，廣大而包容，故水穀之氣停畜也. 小腸之體，狹窄而屈曲，故水穀之氣消導也.⁵⁷⁾

「臟腑論」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腸胃로 들어온 水穀 전체[水穀之都數]가 腸胃를 지나면서 溫熱涼寒의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水穀之氣의 발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차 과정은 水穀으로부터 직접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과정이고 2차 과정은 발생된 水穀之氣가 上下로

이동하여 변화하는 과정이다.

1차 과정은 水穀之都數가 胃에서 머물러 쌓여 水穀이 엉기면서 薰蒸되어 熱氣가 발생하게 되며, 小腸에서 消導되며 엉겼던 것이 풀려나가면서⁵⁸⁾ 涼氣가 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록 水穀 자체는 胃脘을 통과하며 大腸을 통하여 배출되지만 胃脘과 大腸에서는 자체적으로 水穀之氣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水穀으로부터 직접 水穀之氣를 생성하는 것은 胃와 小腸 뿐이다.

2차 과정에서는 胃의 熱氣 중의 輕淸한 것이 胃脘으로 상승하여 溫氣가 되고 小腸의 涼氣 중에서 質이 있고 重한 것이 大腸으로 하강하여 寒氣가 된다. 胃脘과 大腸에서는 1차 과정에서 발생한 水穀之氣를 분리하여 변화시킴으로써 2차적으로 水穀之氣를 생성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胃脘과 大腸에서 水穀之氣가 上升하거나 下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胃와 小腸에서 먼저 停畜 및 消導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小腸에서의 消導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胃에서의 停畜 과정이 선행된다. 이처럼 水穀 代謝의 과정에서 胃에서의 소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였다.

이어서 腸胃의 四府의 위치와 형상에 근거하여 추상하여 각각이 수행하는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胃脘은 口鼻로 통하여 水穀之氣를 上升시킬 수 있으며, 大腸은 肛門으로 통하므로 水穀之氣를 下降시킬 수 있고, 胃는 넓고 커서 포용하므로 水穀之氣가 停畜되며, 小腸은 좁고 굴곡져서 水穀之氣가 消導된다고 하였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水穀之氣의 발생 과정은 바로 앞에서 설명했듯 胃, 小腸에서 이루어진다. 胃와 小腸의 사이에서 水穀이 유통되는 통로 크기의 차이를 ‘廣大’와 ‘狹窄’으로 대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水穀이 유통되는 속도가 달라 停畜과 消導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胃에 크게 포용된 水穀

5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5.

5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5.

58)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編纂. 漢韓大辭典(4). 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3. p.1110.

‘平淡’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평범함. 복잡한 사정이 없이 단조로움.”

이 좁고 굴곡진 小腸으로 이동하는 동안 胃에서 계류하여 엉기게 되며, 胃에서 엉겼던 水穀이 小腸에서 풀려나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즉, 구조적 요인으로 胃에서는 水穀이 엉겨 薰蒸되었다가, 小腸에서는 엉겼던 것이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水穀으로부터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한 水穀之氣는 胃脘으로 상승되는 힘에 의하여 胃의 熱氣 중의 가벼운 것이 胃脘으로 상승하여 溫氣가 되고, 大腸으로 下降되는 힘에 의하여 小腸의 涼氣 중 무거운 것이 大腸으로 하강하여 寒氣가 된다.

이와 같이 水穀之氣는 본래 질적인 차원으로부터 氣의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溫熱涼寒의 寒熱 성질을 띠게 된다. 이면에서의 水穀 機轉은 升降 운동을 나타내게 되는데, 水穀 機轉에서의 升降 운동을 발생시키는 원동력은 水穀之氣가 寒熱 성질로 나타난다는 데에 있다.

2) 「臟腑論」의 氣液 機轉

‘氣液’은 「臟腑論」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이제마의 여타 저술 및 「四端論」에서 ‘氣液’과 ‘水穀’을 對待의 개념으로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臟腑論」에 나타난 ‘津液’, ‘臟膜血精’ 등의 津液 및 精氣 관련 개념들이 ‘氣液’ 개념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인다.

「臟腑論」의 氣液 개념은 氣와 液이 상호 전환되는 관계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氣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와 液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혼재되어 있다. 氣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溫熱涼寒의 水穀之氣, 津液, 膏油, 四海의 清氣, 神氣, 血精 등이 있으며, 液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津液, 膏油, 臟膜血精, 四海의 清汁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氣와 液은 상호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며 서로를 이루는 관계를 나타낸다.

「臟腑論」의 내용은, 腸胃에서 水穀이 代謝되고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과정, 그리고 氣液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津液, 膏油, 臟膜血精이 생성되어 四焦의 前後 四海에 갈무리되는 과정, 다시 인체의 형체

들을 補益滋養하여 재구성하는 과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水穀之氣가 형성되는 과정까지는 앞서 설명한 水穀 機轉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은 氣液 機轉에 해당한다.

○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 神之所舍也. 腦海之腦汁清者, 內歸于肺, 濁滓, 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⁵⁹⁾ (나머지 水穀熱氣, 涼氣, 寒氣로부터 변화하는 내용도 형식이 같다.)

「臟腑論」

이 문장에서는 氣液 機轉의 내용을 개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氣液 機轉의 구체적인 과정은 다시 肺脾肝腎에 의하여 津液, 膏油를 생성하는 機轉과 耳目鼻口에 의하여 臟膜血精을 생성하는 機轉으로 양분된다. 원문 중에서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는 肺脾肝腎에 의한 작용이며, “津海之清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 神之所舍也.”는 耳目鼻口에 의한 작용이다.

○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 則精神氣血, 生也, 淺近狹小, 則精神氣血, 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 則津液膏油, 充也, 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 燼也.⁶⁰⁾

「臟腑論」

上記 문장에서 精神氣血을 생성하는 주체가 耳目鼻口이며, 津液膏油를 생성하는 주체가 肺脾肝腎임을 다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氣液의 생성 과정에서 주체인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深遠廣大하게 聽

5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p.645-646.

6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7.

視嗅味하고 正直中和하게 學問思辨하게 되면, 氣液의 생성이 극대화되며,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氣液이 손상된다.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수행하는 이러한 氣液 機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氣液이 손상되는 機轉으로 이행하면 病理적 변화가 발현된다. 자세한 病理적 변화의 機轉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臟腑論」에 나타난 두 가지 계열의 氣液 機轉의 양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肺脾肝腎에 의한 氣液 機轉(津膏油液의 생성)

○ 肺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膩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 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 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 以滋肝元, 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腎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 以滋腎元, 而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 凝聚其液.⁶¹⁾

「臟腑論」

肺脾肝腎에 의하여 나타나는⁶²⁾ 氣液 機轉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작용이 나타나 있다. 하나는 肺脾肝腎이 膩膜血精의 後四海로부터 清汁을 吸得함으로써 스스로의 元氣를 滋養하는 작용이며, 하나는 溫熱涼寒의 水穀之氣로부터 津膏油液의 前四

海를 형성하는 과정을 주관하는 작용이다.

肺脾肝腎이 이와 같은 작용을 수행하는 원동력에 대해 “肺以鍊達事務之哀力”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事務’는 肺가 惡惡之心을 발현시킴으로써 수행하는 활동으로, 肺脾肝腎과 관련된 일련의 작용이 惡惡之心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惡惡之心은 四象人이 人事를 하면서 발현되는 감정인데, 외부에 존재하는 惡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극히 사사롭지 않다’고 표현하였다.⁶³⁾ 肺脾肝腎의 작용은 이러한 감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작용이므로 그 작용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성격이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① 津膏油液의 생성

먼저, 肺脾肝腎 작용의 핵심인 津膏油液 前四海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은 「臟腑論」에서 氣液 機轉을 개괄하는 문장에서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와 같이 서술되는데, 溫熱涼寒의 水穀之氣로부터 津膏油液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水穀之氣를 津膏油液으로 ‘化’하게 하는 주체나 원동력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순차적인 변화 과정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肺脾肝腎의 작용 機轉을 설명한 上記 문장에서는 이 과정을 “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其氣’는 水穀 機轉에 의해 생성된 水穀之氣를 말하며, ‘其津’은 水穀之氣로부터 생성된 津膏油液을 말한다. 즉, 肺脾肝腎은 津膏油液이 모여드는 海를 擁護함을 통해 水穀之氣를 鼓動시켜 津膏油液으로 凝聚되도록 한다.

‘擁護’의 작용은 津膏油液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이다. 肺脾肝腎이 水穀之氣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津膏油液이 최종적으로 갈무리되는 前四海를 擁護함으로써 津膏油液을 생성한다는 의미인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6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6.

62) 앞서 肝肺가 氣液 機轉의 주체가 된다고 한 설명과 여기에서 肺脾肝腎이 氣液 機轉을 수행한다고 한 것이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앞의 肝肺의 작용은 氣液 機轉의 주체로서 근원적인 차원의 작용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肺脾肝腎의 작용은 그러한 원동력에 힘입어 三焦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차원의 작용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2) 水穀-氣液 機轉의 상호 관계에서 詳述하였다.

6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5. “肺脾肝腎之情, 同室之人, 各立於擅利, 故惡惡也. 惡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 則亦極公也.”(性命論)

‘擁’은 북돋는 것으로 나무를 심은 후에 흙을 북돋워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며, ‘護’는 보호하는 것이다. 津膏油液의 모임인 前四海를 擁護하는 것은 水穀之氣로 하여금 안정된 곳으로 모여들도록 유도한다, 자연스럽게 주위의 동질적인 水穀之氣이 津膏油液을 생성하여 각각의 海로 갈무리되도록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곧 ‘擁護’는 외부로부터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작용으로,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의 성격과 일치한다.

肺脾肝腎이 津膏油液을 생성하는 ‘擁護’의 작용은 呼吸으로 설명되는 氣液 機轉 중에서 ‘吸’의 과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擁護’는 앞의 『東武遺稿』 「四象要目註解」에서 ‘吸’ 작용의 의미로 설명한 ‘致來’의 이치와 상통한다. 앞에서 ‘致來’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옹호함으로써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자연히 수집되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肺脾肝腎의 작용은 ‘致來’의 의미에 부합한다. 그래서 水穀之氣가 津膏油液으로 化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근본적으로는 氣液 機轉의 吸 작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內以擁護”라고 하였는데 ‘擁護’ 작용의 방향성이 ‘內’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肺脾肝腎이 擁護하는 前四海는 腹部 前面에 위치하는데 이는 臟이 위치하고 있는 後面에 비해 裏에 해당한다. 즉, ‘擁護’에 의해 표현되는 氣液 機轉의 吸 작용의 방향성이 裏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後四海로부터 ‘吸得’하여 前四海를 ‘擁護’하는 일련의 吸 작용 과정이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냄도 알 수 있다.

② 肺脾肝腎 滋養

肺脾肝腎에 의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氣液 機轉 작용은 肺脾肝腎이 스스로의 元氣를 滋養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臟腑論」에서 氣液 機轉을 개괄하는 문장에서 “臟海之臟汁清者, 內歸于肺”와 같이 자연스럽게 肺脾肝腎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언급되었는데, 上記 문장에서는 “吸得臟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이라고 하여 ‘吸得’이라고 표현하였다.

‘吸得’은 肺脾肝腎의 주체적인 작용을 나타낸다. 이 역시 자기 자신을 滋養함으로써 자기를 지키기

위한 惡惡之心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吸得’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작용이 역시 氣液 機轉의 呼吸 작용 중 ‘吸’ 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③ 意慮操志의 갈무리

○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⁶⁴⁾

「臟腑論」

意慮操志는 정신 작용으로, 『靈樞』 「本神」의 意志思慮智에 대한 언급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⁶⁵⁾ 이에 따르면 意慮操志는 외부의 사물에 대처하는 정신 작용으로, 외부에 대처하는 이유는 외부의 사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⁶⁶⁾

이러한 성격의 정신 작용이 津膏油液의 前四海에 갈무리되는 이유는 그 성격이 津膏油液을 생성하는 肺脾肝腎의 작용의 성격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津膏油液의 海는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의 발현에 의하여 擁護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성향의 정신작용이 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意慮操志는 인체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裏 부위에 해당하는 前四海에 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耳目鼻口에 의한 氣液 機轉(神氣血精의 생성)

○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清氣,

6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7.

6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心有所慮,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因志而存變, 謂之思. 因思而遠慕, 謂之慮. 因慮而處物, 謂之智.”(本神)

66) 안진희 외 3인. 『靈樞本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1). p.114. “‘神’이 실제 現實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神’의 用인 ‘智’로써 사물에 대처하게 되는 과정인데,”

充滿於上焦，爲神，而注之頭腦，爲髓，積累爲腦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提出膏海之清氣，充滿於中上焦，爲氣，而注之背脊，爲膜，積累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嗅力，提出油海之清氣，充滿於中下焦，爲血，而注之腰脊，爲凝血，積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提出液海之清氣，充滿於下焦，爲精，而注之膀胱，爲凝精，積累爲精海。⁶⁷⁾

「臟腑論」

耳目鼻口에 의하여 나타나는 氣液 機轉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耳目鼻口가 津膏油液의 前四海로부터 清氣를 提出함으로써 三焦에 充滿시켜 神氣血精을 생성하는 작용과 神氣血精을 後四海로 흘러보냄으로써 膩膜·凝血·凝精을 이루도록 하여 後四海를 형성하는 작용이 나타나 있다.

耳目鼻口가 이와 같은 작용을 수행하는 원동력에 대해 “耳以廣博天時之聽力”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天時’는 耳의 好善之心을 통해 외부를 인식하는 것으로, 氣液 機轉에서 耳目鼻口를 통해 수행되는 일련의 작용이 好善之心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好善之心은 四象人이 天機를 察하면서 발현되는 감정인데, 외부에 존재하는 善을 추구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히 공변된 것’이라고 표현하여 이 善의 속성이 공적인 성격의 것임을 언급하였다.⁶⁸⁾ 耳目鼻口의 작용은 이러한 감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작용이므로 그 작용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성격이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① 神氣血精의 생성

먼저, 耳目鼻口 작용의 핵심인 神氣血精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은 「臟腑論」에서 氣液 機轉을 개괄하는 문장에서 “津海之清氣，出于耳而爲神”과 같이 서술되는데, 津膏油液 前四海의 清氣로부터 神氣血精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津膏油液 前四海의 清氣를 出하여 神氣血精으로 만드는 주체나 원동력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순차적인 변화 과정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耳目鼻口의 작용 機轉을 설명한 上記 문장에서는 이 과정을 “提出津海之清氣，充滿於上焦，爲神”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津海之清氣’는 津膏油液의 前四海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淸濁이 분리된 상태의 淸氣인데, ‘提出’은 이를 이끌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提出’은 文案이나 의견 등을 높이 들어 올려 나타내어 공공의 영역에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提出’ 행위의 이면에는 공공의 善을 추구하는 耳目鼻口의 好善之心이라는 원동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용에 의해 津膏油液 前四海의 淸氣가 공적인 영역인 三焦에 充滿됨으로써 神氣血精으로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처럼 津膏油液의 淸氣로부터 神氣血精이 생성되는 과정은 기존 의학 전통에서의 精氣의 생성 과정에 상응한다.⁶⁹⁾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味歸形，形歸氣，氣歸精，精歸化”와 같이 精氣의 생성 과정을 요약하였으며, 또 “化生精”이라고도 하였다. ‘化’는 精 자체가 氣化하여 精氣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化生精”은 이러한 精氣가 주체가 되어 다시 精의 생성 과정을 주재하게 됨을 말한다.⁷⁰⁾ 즉, 精氣는 스스로의 精微로운 성질을 발휘해 同氣相求하여 精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同氣相求의 원리는 神氣血精을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耳目鼻口에서는 스스로가 생

6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6.

6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5. “耳目鼻口之情，行路之人，大同於協義，故好善也。好善之實，極公也，極公，則亦極無私也。”(性命論)

69) 생성된 精氣가 臟을 滋養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70) 백유상.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過程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1). p.7, 9. “精 자체가 氣化하여 精氣로 바뀌는 것”, “이 精氣가 다시 자신의 精을 만드는 과정을 주재한다는 것”

성해 낸 臟膜血精에 깃드는 정신 작용인 神靈魂魄이 발현되는데⁷¹⁾, 이것의 精微로운 성질에 의하여 前四海 중에서 유독 清氣를 提出하여 神氣血精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⁷²⁾

한편, 耳目鼻口가 神氣血精을 생성하는 ‘提出’의 작용은 呼吸으로 설명되는 氣液 機轉 중에서 ‘呼’의 과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提出’는 앞의 『東武遺稿』 「四象要目註解」에서 ‘呼’ 작용의 의미로 설명한 ‘應對’의 이치와 상통한다. 앞에서 ‘應對’에 대해 외부에서의 부름에 답하는 것으로서 질문에 응하여 자신의 생각을 통해 답을 구성하여 대답하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耳目鼻口의 작용은 ‘應對’의 의미에 부합한다. 그래서 津膏油液의 清氣가 神氣血精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근본적으로는 氣液 機轉의 呼 작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臟膜血精 後四海의 형성

後四海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注之膀胱，爲凝精，積累爲精海.”와 같이 표현했다. 耳目鼻口는 ‘提出’ 작용을 통해 형성된 神氣血精을 다시 ‘注之’하여 後四海로 보내어 凝結，累積하여 海를 이루도록 한다.

‘注之’는 흘러보내는 것으로 提出하여 三焦에서 형성된 神氣血精을 그대로 뺏어서 表 부위인 背部 後面에 위치한 後四海로 보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裏 부위인 腹部 全面에 위치한 前四海로부터 提出하여 表部로 보내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 氣液 機轉의 呼 작용의 방향성이 裏에서 表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凝結과 累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외부의 작용이 가해지지 않고 흘러간 그대로 凝結하여 累積된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肺脾肝腎의 강력한 擁護 작용에 의해 구심점을 향해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형성되는 前四海와 대비된다. 본래 神氣血精은 耳目

鼻口의 好善之心에 의하여 발생하여 善을 추구하는 원리가 이미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위적인 작용이나 의지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재된 목표를 따라 무심하게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③ 神靈魂魄의 갈무리

○ 臟海藏神，膜海藏靈，血海藏魂，精海藏魄.⁷³⁾

「臟腑論」

神靈魂魄은 정신 작용으로, 『靈樞』 「本神」의 精神魂魄에 대한 언급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⁷⁴⁾ 이에 따르면 神靈魂魄은 정신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⁷⁵⁾으로, 앞서 설명한 意慮操志가 작용되는 이면에서의 주체가 된다.

神靈魂魄과 같은 정신적 주체는 인체의 내부에서 始原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식해왔다. 본래 사람의 生은 天地로부터 온 것이며 神도 天地로부터 사람에게 들어와 머물러 있는 것⁷⁶⁾으로, 神靈魂魄은 사유화된 정신이 아니라 공격인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의 정신 작용이 臟膜血精의 後四海에 갈무리되는 이유는 그 성격이 神氣血精을 생성하는 耳目鼻口의 작용의 성격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臟膜血精의 海를 형성하는 神氣血精은 耳目鼻口의 好善之心의 발현에 의하여 提出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외부의 공격인 善에 합류하려는 목적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성향의 정신작용이 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神靈魂魄은 인체 구조에서 상대적으

71)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1999. p.102. “耳屬神”, “目屬靈”, “鼻屬魂”, “口屬魄”

72) 氣液의 精化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 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同氣相求의 원리 상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제마의 好善과 惡惡의 도덕 원리가 개입된 과정은 찾아 보기 어렵다.

73) 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7.

7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隨神往來者，謂之魂。並精而出入者，謂之魄。”(本神)

75) 안진희 외 3인. 『靈樞本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 전학회지. 2015. 28(1). p.114. “정신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精神魂魄’의 작용과 ……”

7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p.68. “岐伯答曰，天之在我者，德也，地之在我者，氣也，德流氣薄而生者也。”(本神)

로 表 부위에 해당하는 後四海에 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마의 다른 서술에서도 공적이며 외부를 지향하는 神靈魂魄의 특성이 나타난다. 『東武遺稿』 「四象要目註解」에서 「性命論」의 “頭有識見，肩有威儀，腰有材幹，臀有方略。”에 대해 주해한 내용에서 “頭之腦海，神之所舍也。神之爲氣，光明而鑑造化，自有識見，則此句之論，太陽人言，而特舉少陰人言者，蓋少陰出太陽，而奪其母神故也。”⁷⁷⁾와 같이 언급하였다. 識見，威儀，材幹，方略 등은 四象인이 타고난 체질적인 한계로 인해 잘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大人의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원리에 대해서 본인이 약하게 태어난 神靈魂魄의 정신을 그것을 강하게 타고난 다른 체질로부터 빌려 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위 문장은 少陰인이 太陽인의 神을 취하여 識見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체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였다.⁷⁸⁾ 즉, 神靈魂魄은 본래 외부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으로 공적인 작용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3)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 나타난 水穀-氣液 機轉의 병증 분석 적용

○ 問朱震亨論噎膈反胃，曰血液俱耗，胃脘乾槁，食物難入，其說如何。曰，水穀，納於胃而脾衛之，出於大腸而腎衛之，脾腎者，出納水穀之府庫而迭爲補瀉者也。氣液，呼於胃脘而肺衛之，吸於小腸而肝衛之，肺肝者，呼吸氣液之門戶而迭爲進退者也。是故，少陽人，大腸出水穀陰寒之氣，不足，則胃中納水穀陽熱之氣，必盛也。太陽人，小腸吸氣液陰涼之氣，不足，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必盛也。胃脘陽溫之氣太盛，則胃脘血液乾槁，其勢固然也，然非但乾槁而然也，上呼之氣太過

而中吸之氣太不支，故食物不吸入而還呼出也。⁷⁹⁾

「太陽人內觸小腸病論」

이 문장은 水穀-氣液 機轉을 통해 실제 太陽인의 병증인 噎膈의 원인을 분석하는 문답이다. 그 과정에서 氣液과 水穀이 代謝되는 과정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 전체에서 氣液과 水穀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실제 병증을 설명한 유일한 사례이자 氣液-水穀 機轉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다.

이제마는 이 부분에서 太陽인의 병증인 噎膈의 機轉을 ‘上呼之氣太過’와 ‘中吸之氣太不支’로 언급함으로써, 食物이 흡입되지 못하는 腸胃에서의 발병 機轉을 氣液 機轉의 작용을 통해 설명했다. ‘食物’은 곧 ‘水穀’으로, 水穀이 腸胃를 통과하는 과정, 즉 ‘水穀 機轉’에도 氣液 機轉의 작용이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실적인 병증에 대한 해석을 통해 水穀-氣液 機轉이 ‘작용’ 차원에서 서로 혼용하여 작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水穀-氣液 機轉을 현실에서 활용하는 데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부분의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적용례에서 반드시 인식해야할 점은 腸胃의 공간에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이 모두 나타난다고 설명한 것이다. 水穀-氣液 機轉은 脾腎과 肝肺의 出納, 呼吸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 전신적인 영향력을 갖는 機轉이다. 腸胃는 주로 공간적으로 水穀-氣液 機轉을 나누어 설명한 「臟腑論」의 관점에 의하면 水穀 機轉가 주로 지배하는 공간적 分局으로 볼 수 있지만, 水穀-氣液 機轉 자체는 이보다 상위 층차의 개념으로서 水穀-氣液 機轉의 공간적 구분을 넘어 작용이 일어나게 됨을 이 부분의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치에 대해 이제마가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여기에서의 이제마의 서술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氣液의 呼吸이 腸胃에서도 작용하고 있음

77)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p.107.

78)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p.108. “蓋太陰生少陽，而假其子靈故也”，“蓋少陽出太陰，而憑其母魂故也”，“蓋太陽生少陰，而恃其子魄故也”

7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22.

을 알 수 있다. 少陽人에서 나타나는 “大腸出水穀陰寒之氣”, “胃中納水穀陽熱之氣”의 대비와 太陽人에서 나타나는 “小腸吸氣液陰涼之氣”, “胃脘呼氣液陽溫之氣”의 대비를 언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陰寒之氣와 陽熱之氣는 주로 脾胃의 出納 작용, 즉 腸胃에서의 水穀 機轉의 작용에 의해 발현되며, 陰涼之氣와 陽溫之氣는 주로 肝肺의 呼吸 작용, 즉 腸胃에서의 氣液 機轉의 작용에 의해 발현된다는 의미가 된다. 腸胃에서의 氣液 機轉의 작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氣液 機轉의 ‘작용’은 ‘공간적 分局의 구분’이라는 층차와 구별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4. 水穀-氣液 機轉 개념의 개요 및 적용

1) 水穀-氣液 機轉 개념의 개요

(1) 생명 활동의 양대 계통

『草本卷』에 나타난 水穀-氣液 機轉의 초발적 관념 속에 이미 이들이 추구하는 생명 활동의 목적이 나타나 있다. ‘外御’, ‘內修’ 등으로 표현된 해당 내용들은 인간의 생명 활동⁸⁰⁾을 추동하는 내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肝肺와 脾胃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제마의 깊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차원에서 출발한 사유가 현실적 차원에서 인체를 영위하는 水穀-氣液의 代謝 활동에까지 연역되어, 생명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념들이 일련의 계통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 계통의 실질적인 운용 과정을 ‘水穀’과 ‘氣液’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을 본 연구에서 水穀-氣液 機轉으로 지칭하였다.

그러므로 水穀-氣液 機轉의 개념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구성하는 두 계통을 관통하는 각각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2)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

水穀-氣液 機轉은 애초에 脾胃와 肝肺라는 주체를 상정하여 성립되었는데, 『草本卷』에서는 四臟의 體形에 각각이 구현하고자 하는 생명 활동 상의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들 四臟이 그러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활동이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肝肺와 脾胃가 수행하는 呼吸, 出納이 그것이다.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 각각은 하나의 機轉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되는 두 가지 작용(呼와 吸, 出과 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두 작용은 현실에서 상보적으로 작용하면서 ‘內修’, ‘外御’와 같은 하나의 생명 활동 상의 목표를 구현해낸다. 이제마는 이러한 현실적 양상을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迭爲補瀉者”, “迭爲進退者”⁸¹⁾와 같이 ‘갈마들다.[迭]’라고 표현하였다.

呼吸 과정에서는 ‘應對’와 ‘致來’의 이치가 교대됨으로써 議像을 형성하고 포출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出納 과정에서는 ‘盈虛’와 ‘渴盡’의 이치가 교대됨으로써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질적인 요소를 비워내고 채워서 안정하게 갖추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3) 水穀-氣液 機轉의 공간

水穀-氣液 機轉은 생명 활동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 전신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각 機轉이 더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구분이 존재한다. 이미 살펴본 이제마의 언급에서도 이러한 공간에 대한 분별적 인식이 나타난다.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草本卷』의 언급에서 ‘穀道’, ‘氣道’라는 표현을 통해 두 機轉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을 대비적으로 설명하였다. 穀道는 腸胃로 통하며 氣道는 三焦로 통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 이와 같은 『草本卷』의 공간에 대한 분별적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臟腑論」의 서술은 水穀 機轉에 대한 서술과 氣液 機轉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腸胃와 三焦의 공간을 대비적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을 각각 상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80) 여기서의 ‘생명 활동’은 이제마의 ‘性命’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8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22.

즉, 이제마는 水穀 機轉은 주로 腸胃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氣液 機轉은 주로 三焦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인식한 것이다. 공간에 대한 분별적 인식은 水穀-氣液 機轉을 실재하는 인체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킨 것이므로, 인체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병증을 水穀-氣液 機轉을 통해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水穀-氣液 機轉의 공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다. 『太陰人內觸小腸病論』에서 水穀 機轉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인 腸胃에서도 氣液 機轉의 작용인 呼와 吸이 일어난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적 구분은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과는 절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공간적 구분은 水穀-氣液 機轉이 가장 현실적인 차원으로 적용된 것이므로, 해당 機轉의 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작용의 차원과 일치할 수는 없다.

2) 水穀-氣液 機轉 개념의 실제 적용

(1) 水穀-氣液 機轉의 의학적 적용

① 의학적 적용의 개요

주로 『東醫壽世保元』 이전의 문헌에서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에 나타난 의학적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水穀 機轉의 出納 작용은 水穀을 원활히 유통시킴으로써 水穀之氣를 발생시킨다. 또, 각 요소들의 균형적인 충족을 추구하는데, 水穀之氣의 升降 운동을 통해 각종 水穀之氣의 편차를 해소하여 몸의 구조를 구성하는 질적 요소⁸²⁾들을 충족시키면서 질적인 提高를 추구한다.

공간적으로는 腸胃를 중심으로 주된 작용이 나타나며, 水穀이 腸胃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水穀之氣의 溫冷에 의하여 上下의 陰陽 升降의 운동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하부의 冷氣가 편중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溫氣가 내려와 冷

氣이 편중을 구제해야 하는데, 이런 작용을 '交濟'라고 하였으니 '水火既濟'의 의미와 상통한다. 水穀之氣의 溫冷이 발생하는 腸胃가 종적으로 유통되는 구조인 것에 기인해 上下의 종적인 방향으로 운동 양상이 나타난다.

氣液 機轉의 呼吸 작용은 氣液의 虛實을 조절함으로써 氣液의 원활한 소통과 풍부한 생성을 추구한다. 呼 작용은 氣液이 외부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일정한 목적성을 가지게 되어 일련의 흐름을 보이며 외부로 소통되는 과정에 해당하며, 吸 작용은 氣液이 내부의 필요에 따라 모여들어 하나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내부로 채워지는 과정에 해당한다.

공간적으로는 三焦를 중심으로 주된 작용이 나타나며, 氣(氣液)가 三焦로 呼吸됨으로써 氣(氣液)의 虛實이 表裏 사이에서 조절되며 氣의 순환과 유통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氣液이 裏에서 實하며 表에서 虛한 양상이 나타날 경우, 氣液을 表로 보내는 것이 表裏 虛實을 均適하게 하는 것이다. 三焦라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虛實이 교대함에 따라 表裏 사이에서 內外의 방향으로 운동 양상이 나타난다.

② 氣液 機轉의 구체적 적용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는 특히 氣液 機轉이 三焦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화하였다. 氣液에 해당하는 津膏油液, 神氣血精, 膩膜·凝血·凝精 등의 실제적 개념을 설정하였고 이들이 몸에서 운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前後 四海의 개념을 도입하여 몸의 각 부위에 배속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개념들을 이용하여 前後의 四海 사이에서 氣液이 유통되는 과정을 상술하였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두 방향의 氣液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津膏油液은 後面에 분포하던 膩膜血精에 의해 滋養되는 肺脾肝腎의 '擁護' 작용으로 몸 前面의 四海에 위치하게 되며, 神氣血精은 前面에 분포하던 津膏油液을 耳目鼻口가 '提出'함으로써 형성되어 몸 後面의 四海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氣液 機轉의 呼吸 작용으로 구분해보면, 肺脾肝腎의 '擁護'는 吸 작용과 같은 성격

82) 기존 의학 전통에서는 營衛, 津液, 精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을 보이며 耳目鼻口의 '提出'은 呼 작용과 같은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앞에서 논의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대체로 背를 表 부위로, 腹을 裏 부위로 인식하는데 이를 「臟腑論」에 나타난 氣液의 呼吸 작용에 적용해볼 수 있다. 津膏油液이 神氣血精으로 변화하여 後四海에 분포되는 작용은 裏에서 表로 향하는 흐름인데, 이는 呼 작용에 의한 것이다. 또, 臟膜血精이 肺脾肝腎을 滋養하고 肺脾肝腎이 津膏油液의 海를 擁護함으로써 前四海를 이루는 작용은 表에서 裏로 향하는 흐름⁸³⁾인데, 이는 吸 작용에 의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呼 작용에 의하여 表 방향으로의 운동이 일어나고 吸 작용에 의하여 裏 방향으로의 운동이 발생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上記 呼吸의 과정의 성격을 단순히 氣液 운동의 방향성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과정에서 氣液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津膏油液과 臟膜血精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惡惡之心에 의해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내적 지향과, 好善之心에 의해 公的 세계를 추구하는 외적 지향에 의해 각 氣液의 성격이 변화하고 결정되며,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前後 四海에 머물게 되는 意慮操志와 神靈魂魄의 정신 작용의 차이로 나타난다.⁸⁴⁾ 이와 같은 氣液의 질적인 변화에 의해 氣液 機轉이 '四散之議像'을 드러내는 목적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水穀-氣液 機轉의 상호 관계

氣液 機轉과 水穀 機轉은 서로 상대되는 機轉으로서 '體'에 있어서 두 가지는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발현되어 인간의 생명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用'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상보적인 작용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臟腑論」은 이제마가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에

83) 실제로 "內以擁護"라고 표현하여 內部를 향하는 작용임을 직접 언급했다.

84) 意慮操志는 외부의 사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며 神靈魂魄은 公的인 세계를 지향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논하였다.

대한 이론적 구상이 완비된 상태에서 인체의 구체적인 생리 활동 구조를 설계한 결과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用'의 차원을 충분히 고려한 체계이기에, 「臟腑論」의 水穀-氣液 機轉에도 이러한 상호 작용 양상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臟腑論」에서는 공간적으로 腸胃와 三焦(四海)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주된 水穀-氣液 機轉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은 이러한 공간적 구분보다 상위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공간적 구분을 초월해 작용하게 된다. 즉, 腸胃가 비록 水穀 機轉이 나타나는 중심적인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 氣液 機轉이 분명히 관여하고 있으며, 三焦(四海)는 비록 氣液 機轉이 나타나는 중심적인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 水穀 機轉도 분명히 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三焦(四海) 영역에서의 津膏油液과 臟膜血精의 생성과정은 분명 일차적으로는 氣液 機轉의 呼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氣液 機轉에서도 전체적으로 水穀 機轉이 작용할 것은 이론적으로 자명한 사실이 된다.

氣液 機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溫熱涼寒 네 종류의 氣로부터 네 종류의 氣液 機轉 계열(津-臟, 膏-膜, 油-血, 液-精)이 발생한다. 이들 각 계열의 寒熱과 溫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水穀 機轉의 작용을 강하게 받는 계열과 水穀 機轉의 작용을 덜 받는 계열로 분화될 수 있다.

본래 溫氣와 涼氣로부터 시작되는 氣液 機轉 계열(津-臟, 油-血)은 그 자체로 肝肺에 의해 주관되므로 水穀 機轉의 영향력이 약하게 작용하지만, 熱氣와 寒氣로부터 시작되는 氣液 機轉 계열(膏-膜, 液-精)은 脾腎에 의하여 주관되는 영역이므로 脾腎에 의한 水穀 機轉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熱氣와 寒氣에 의하여 시작되는 膏-液과 膜-精의 계열에서는 氣液 機轉의 呼吸에 의하여 氣液의 변화가 발생하면서도 水穀 機轉에 의한 升降의 축이 강하게 구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 腸胃에서의 溫氣와 涼氣의 水穀-氣의 생성 과정에는 水穀 機轉의 작용이

주된 변화를 이끌지만, 이 경우에 肝肺의 呼吸 작용이 이들에게 특히 강하게 작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⁸⁵⁾

요컨대 「臟腑論」에서는 腸胃와 三焦(三焦와 四海)의 공간을 중심으로 水穀-氣液 機轉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술이 水穀-氣液 機轉 전체가 공간적 조건에 종속되어 작용도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마가 「臟腑論」에서 구체적으로 구성해낸 인체의 생리 활동 구조를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水穀-氣液 機轉이라는 두 機轉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두 ‘계통’의 의미와 실제로 전신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水穀-氣液 機轉이 주로 나타나는 영역을 구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臟腑論」과 같은 생리적 차원의 모델에서는 이를 분절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계통’-‘작용’-‘공간’ 사이에서의 층차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병증에서는 이러한 층차가 혼용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水穀-氣液 機轉을 병증의 이해에 활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최종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층차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⁸⁶⁾

이와 같은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의 상호 작용은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水穀, 納於胃而脾衛之,

出於大腸而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而肺衛之, 吸於小腸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而迭爲進退者也.”⁸⁷⁾라고 한 것에서 명확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⁸⁸⁾

5. 太陰人 病證 분석에의 氣液 機轉 적용 가능성

氣液 機轉은 주로 太陰人과 太陽人의 병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太陰人과 太陽人은 肝大而肺小, 肺大而肝小의 臟局 大小로 구분된다.⁸⁹⁾ 이러한 臟局의 偏差가 존재하므로 肝과 肺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呼吸 작용에서도 자연히 偏差가 발생한다.⁹⁰⁾

8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22.

88) 본 연구에서는 津膏油液과 賦膜血精을 모두 氣液 機轉에 속하는 ‘氣液’의 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준희는 水穀과 氣液의 구분에 대해 “溫氣, 涼氣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津, 賦, 油, 血을 ‘氣液之氣’으로 보았으며 ‘熱氣와 寒氣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膏, 膜, 液, 精을 ‘水穀之氣’로 설정했다. 이러한 개념 설정에서 출발하여 胃脘과 小腸이 주체적으로 呼吸 작용을 수행하여 氣液을 분포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氣液之氣’라는 특유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氣液’의 문제를 ‘氣液 機轉’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과 차이를 보인다. 참조할만한 견해이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溫氣와 涼氣는 모두 水穀之氣와 구별되는 氣液之氣이며, 상대적으로 輕淸한 속성의 것이 溫氣이고, 상대적으로 平淡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涼氣이다. …… 胃脘의 輕淸한 氣液 생성이 胃脘에서의 呼散의 의미를, 小腸의 平淡한 氣液 생성이 小腸에서의 吸聚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溫氣로부터 변환되는 津, 神(賦) 등과, 涼氣로부터 변환되는 油, 血 등도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로 볼 수 있다. …… 胃脘의 呼散 기능은 輕淸한 氣液을 생성하고 인체의 上, 外로 분포시키는 것으로, 小腸의 吸聚 기능은 平淡한 氣液을 생성하고, 인체의 下, 內로 분포시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요약할 수 있겠다.”(이준희, 이의주, 고병희.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근거한 氣液代謝와 太陰人 病理病證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12. 24(4). p.7.)

8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7.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 ”(四端論)

90) 마찬가지로 水穀 機轉은 脾腎의 偏差에 의해 정의되는 少陽人, 少陰人의 병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주로 활용될 수 있다. 氣液을 太陰人 및 太陽人에, 水穀을 少陰人 및 少陽人에 관련짓는 것은 송일병, 이준희 등의 기존 연

85)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이준희는 “각각 陽溫한 성격과 陰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溫涼의 차이를 과연 ‘水穀陽熱之氣’, ‘水穀陰寒之氣’ 등과 동일한 寒熱의 차이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반면에 溫氣와 涼氣는 그 寒熱의 속성이 강하지 않으며, 실제 太陰太陽人 病理病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를 들어 구체적인 病證의 寒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여, 이들은 水穀 機轉의 작용으로부터 나왔지만 氣液 機轉의 작용을 받게 됨으로써 寒熱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이준희, 이의주, 고병희.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근거한 氣液代謝와 太陰人 病理病證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12. 24(4). p.7.)

86) 이를 위해서는 향후 「臟腑論」의 각 부분의 機轉에 대한 복합적 차원에서의 水穀-氣液 機轉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呼吸 작용에 의하여 氣液 機轉이 작동하므로, 呼吸의 偏差가 존재한다는 것은 氣液의 편차가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氣液의 偏差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氣液 機轉에 의한 病理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太陰人과 太陽人의 병증은 氣液 機轉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太陰人과 太陽人에게 肝肺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脾胃에 의한 水穀 機轉 역시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肝肺에서 과급된 病理 機轉이 脾胃의 水穀 機轉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太陰人과 太陽人에서는 肝肺가 臟局의 주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생리적, 病理적 변화 양상에 氣液 機轉이 우선적으로 작용함으로써 水穀 機轉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 그래서 太陰人과 太陽人의 病理적 변화도 또한 氣液 機轉이 중심축이 된다. 만약 위와 같이 太陰人과 太陽人의 水穀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표면적인 것으로, 선행되는 근본 요인은 氣液 시스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呼吸의 偏差에 따른 太陰人 病理 발현

太陰人의 肝大而肺小한 臟局에 의하여 肺에 의한 呼 작용은 肺小로 인하여 不及하게 나타나고 肝에 의한 吸 작용은 肝大로 인하여 太過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반적인 呼吸의 편차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면 無病한 상태가 유지되는데, 편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방해받거나 스스로 이를 포기할 경우 病理 機轉이 발현되어 呼不及과 吸太過의 呼吸의 偏差가 심화된다. 그리고 呼不及과 吸太過의 두 가지 機轉에 의하여 병증이 발현된다.

그런데 肝大而肺小의 臟局에 바탕을 둔 동일한 太陰人 집단 내에서도 평소 ‘상대적으로’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과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太陰人이 타고난 肝大而肺小의 臟局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어느 太陰人이든 본질적으로 肝의 활용이 肺의 활용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이치이나, 太陰人 내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경향성을 구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病理적인 면에서도 呼不及과 吸太過의 두 가지 病理 機轉이 존재한다. 病理적 변화 과정에 들어설 경우에도 평소의 肝肺의 경향성에 좀 더 부합하는 機轉이 존재하므로, 발병 시에는 해당 機轉과 관련된 증후들이 중심으로 나타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은 발병하였을 경우 吸太過의 病理 機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추론되며,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은 발병하였을 경우 呼不及의 病理 機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추론된다. 본래 자신이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경향성에 자신의 精氣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病理 機轉이 발생할 경우 精氣가 지키고 있는 곳으로부터 병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발병 면에서도 경향성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1) 呼不及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이 존재한다. 이 太陰人은 본래 太陰人의 약점인 肺小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평소의 삶이 이루어진다. 肺小는 呼 작용의 不及을 나타내는데, 이 경향성은 肺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不及한 呼 작용을 즉각적으로 보완함으로써 呼吸의 偏差를 극복하고자 한다.

氣液 機轉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의 太陰人은 太陰人 중에서 呼 작용의 이치인 ‘應對’의 이치를 비교적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吸 작용의 이치인 ‘致來’의 이치를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외부의 요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려 하며, 무엇인가를 강하게 옹호하여 굳이 스스로의 세력을 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太陰人의 病理 機轉은 呼不及에서 시작될 것이다. 평소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

구에서 이미 제시된 바이다.

에 病理 상황이 시작하는 지점도 肺의 작용이 된다.

呼不及은 ‘應對’의 이치가 잘 발휘되지 않는 것이니 외부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太陰人에게서 외부의 요구란 人事 면에서는 事務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勞心焦思⁹¹⁾, 怯心⁹²⁾와 같은 것이며 의학적으로는 외부 邪氣의 침입⁹³⁾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것이다.

氣液 機轉 상으로는 氣液을 외부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보내어 소통하는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니, 氣液이 외부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소통이 정체되는 현상에 의해 氣液이 중간에 凝滯될 것이다. 주로 三焦의 表 부위에서 氣液이 虛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관련된 증후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2) 吸太過

반면,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도 존재한다. 이 太陰人은 본래 太陰人의 장점인 肝大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삶이 이루어진다. 肝大는 吸 작용의 太過를 나타내는데, 이 경향성은 강하게 타고난 肝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太過한 吸 작용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不及한 肺의 呼 작용은 吸에 의해 마련된 기반 위에서 발휘하여 肺의 활용에는 만전을 기함으로써 呼吸의 偏差를 극복하고자 한다.

氣液 機轉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의 太陰人은 太

陰人 중에서 吸 작용의 이치인 ‘致來’의 이치를 강하게 추구하며, 呼 작용의 이치인 ‘應對’의 이치는 신중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옹호하여 스스로에게 오게 하여 세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외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만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太陰人의 病理 機轉은 吸太過에서 시작될 것이다. 평소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病理 상황이 시작하는 지점도 肝의 작용이 된다.

吸太過는 ‘致來’의 이치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이니 자신의 기반이 되는 주장이나 내부의 주장이나 필요성에 대한 옹호가 과도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끌어 오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신의 기반을 확보하고 지키는 데에 주력하다보면 오히려 외부에 ‘應對’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應對하지 못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요구한 본질에서 벗어나 꾸며진 모습으로 헛된 應對⁹⁴⁾를 하기도 한다. 太陰人에게 내부에 대한 옹호가 과도한 것은 慾心⁹⁵⁾이 되며, 樂情의 浪發에 의한 侈樂無厭⁹⁶⁾과 같은 것이 있다.

氣液 機轉 상으로는 氣液을 내부의 구심점으로 모여들어 채워지는 흐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니, 氣液이 내부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쌓이게 될 것이다. 주로 三焦의 裏 부위에서 氣液이 實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관련된 증후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91) 예를 들면, 太陰人 長感病의 원인을 “此證原委, 勞心焦思之餘, 胃脘衰弱而表局虛薄, ……”이라 말한 것이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06.)

92) 「四象人辨證論」에서는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寧靜, 則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 則放心極酷而物化之也. 若怯心至於怕心, 則大病作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之重證也.”와 같이 말하여, 怯心이 怔忡과 같은 重證을 유발한다고 하고, “察於外而恒寧靜怯心”해야 한다고 하였다. 太陰人에게 ‘察於外’는 事務를 살피는 것이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30, 731.)

93) 예를 들면, 太陰人 背頤表病에서 “此卽, 太陰人, 傷寒, 背頤表病輕證也.”라고 하여 傷寒인을 직접 언급한 것, 또 長感病에서 “不勝寒而外被寒邪所圍”와 같이 寒邪를 언급한 것이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05, 706.)

94) 백유상.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p.53. “太陰人의 경우에는 이치에 밝지 못하여 事務를 행하는데 민첩하지 못하는데, 반대급부로 밖으로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외면적 侈飾에 힘쓰게 된다. 곧 內守에 중심을 두다가 外勝을 하려다 나오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侈心이니 이 侈心이 없다면 萬人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大人의 威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95) 「四端論」에서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이라고 한 것은 太陰人에 해당한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7.)

96) 예를 들면 太陰人 燥熱病의 원인을 “此病原委, 侈樂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大枯之故也.”라고 말한 것이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11.)

III. 結 論

본 연구에서는 ‘氣液’ 개념과 ‘氣液 機轉’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제마가 저술한 문헌상에 언급된 氣液에 관련된 논설들을 모두 모아 고찰하는 방법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武遺稿』, 『東醫壽世保元』을 중심적인 텍스트로 삼아 고찰하였다.

1. ‘水穀-氣液 機轉’은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한 개념이다.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게 된 동기는, 水穀-氣液이 운영되는 機轉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대사(代謝, metabolism)’, ‘氣液之氣病證’과 같은 개념보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病機’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이제마의 ‘氣液’은 四象醫學 수립의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설정된 개념이었다. 초기 『草本卷』에서 이루어진 肺脾肝腎의 기능에 대한 추상으로부터 출발하여 腸胃-三焦, 出納-散充 개념들과의 결합을 통해 최초의 水穀-氣液 機轉의 원형이 제시되었다. 『東武遺稿』에서는 水穀-氣液이 운영되는 작용인 出納-呼吸에 대하여 개념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出納-呼吸 작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서는 구체적인 水穀-氣液의 매개물들의 작용 機轉을 구성함으로써 인체의 생리에 대해 조밀하게 설명해 내었는데, 그 안에 녹아있는 水穀-氣液 機轉의 함의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형성 과정에서 水穀-氣液 機轉의 핵심 기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水穀 機轉은 누구나 동일한 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온전히 구비하여 完整性을 유지하는 목적을 지닌다. 외부로 표현되는 개

별적 議像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적으로 몸이 갖추어야 할 질적인 요소들을 빠짐없이 갖추는 데에 주안점을 둔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氣液 機轉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알맞은 모습을 분과시켜 드러나게 하는 목적을 지닌다. 질적인 요소에 대한 확충보다는, 갖추고 있는 요소들을 주체적으로 제어하여 활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4.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의 氣液 機轉은 肺脾肝腎에 의한 津膏油液의 생성과 耳目鼻口에 의한 神氣血精의 생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擁護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여 吸 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후자는 주로 提出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여 呼 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氣液 機轉의 呼와 吸의 과정으로 대비되고 있는데, 이는 氣液의 表裏로의 공간적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단순한 이동 과정이 아니라 氣液 자체의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5. 水穀-氣液 機轉에는 ‘계통’-‘작용’-‘공간’의 층차가 존재한다. 이제마가 「臟腑論」에서 구체적으로 구성해낸 인체의 생리 활동 구조를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水穀-氣液 機轉이라는 두 機轉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두 ‘계통’의 의미와 실제로 전신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水穀-氣液 機轉이 주로 나타나는 영역을 구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氣液 機轉은 주로 太陰人과 太陽人의 병증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水穀 機轉은 주로 少陰人과 少陽人의 병증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7. 太陰人에서 呼散과 吸聚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문제들에 대해서 예상해보았다. 肝大肺小의 臟局에 따라 肝에 중점을 두는 경향성, 肺에 중점을 두는 경향성, 두 가지 경향성을 분리하였다.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에서는 氣液이 외부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소통이 정체되는 현상에 의해 氣液이 중간에 凝滯될 것이다. 주로 三焦의 表 부위에서 氣液이 實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관련된 증후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에서는 氣液이 내부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쌓이게 될 것이다. 주로 三焦의 表 부위에서 氣液이 實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증후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금번 연구는 氣液 機轉의 개념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최종적으로 실제적 병증을 분석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氣液 機轉 발현 경향성을 토대로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太陰人 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와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氣液 機轉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개별적 형증들, 주요 病理 지표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한 太陰人 병증 연구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用藥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현실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Dept.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of all the college of Korean medicine ed.,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Jipmoondang. 2006.
-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

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8.

2. Heo J original work. Jin JP annot.. New paralalled translation of Donguibagam. Seoul. Beobin publisher. 2007.

許浚 저. 진주표 주석. 新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7.

3. Dankook University Academy of Asian Studies. The great dictionary of classical Chinese explained in Korean(4). Seoul. Department of Publishing in Dankook University. 2003.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編纂. 漢韓大辭典(4). 서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3.

4. Song IB. The Comprehensive introduc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Hana Media. 1993.

송일병.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 1993.

5. Lee GW, Ahn BJ supervised. The great dictionary of classical Chinese explained in Korean. Kyohak Publishing. 1998.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6. Lee JM original work. Lyang BM, Cha KS trans.. Dongmu's Posthumous manuscripts. Seoul. Haedonguihak Publisher. 1999.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사. 1999.

7. Lee JM original work. Park SS trans.. Donguisusebowon Sasangchobongwon. Paju. Jipmun Publisher. 2005.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파주. 집문당. 2005.

8. Han DS. Annotation about Donguisusebowon. Seoul. Seonglihoeh Publisher. 1967.

한동석 저.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9. Hong WS.

- Jeonggyohwangjenaegyeong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意學研究院出版部. 1985.
10. Hua S original work. Yoon CY trans.. Nanjingbenyi. Daejeon. Joomin Publisher. 2003.
滑壽 원저. 윤창열 편역.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11. Kim JW, Go BH, Song IB. A study on The Discourse on Viscera and Bowel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constitutional medicine. 1990. 2(1).
김종원, 고병희, 송일병.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0. 2(1).
 12. Baik YS.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Four constitutions according to the aspects of Nature, Human, Mind and Missio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4. 17(1).
백유상.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13. Song IB. The Basic principle of treatment according to the symptom (病證藥理)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constitutional medicine. 1996. 8(1).
송일병. 四象人病證藥理의 成立過程과 그 運營精神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6. 8(1).
 14. Song IB. A Study on the Symptomatic-pharmacology(病證藥理) Sasang Constiution. Journal of constitutional medicine. 1998. 10(2).
송일병.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8. 10(2).
 15. Song IB. Dongmu Lee Je-ma's minds of treatment presented in 『DongyiSooseBowon』.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1. 13(2).
송일병.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이제마의 治療醫學精神.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16. Ahn JH, et al.. A Study on 「Benshen」 chapter in LingShu.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 28(1).
안진희 외 3인. 『靈樞·本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1).
 17. Yi KB. The Medical Theory and Practice of YI Chema(李濟馬) in Late 19th Century Korea. Doctorate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이기복.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의학 사상과 실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8. Lee JH, Lee EJ, Go BH. The Study on the Energy and Fluid Metabolism and the Pathology and Symptomatology of Taeemin based on The Discourse on Viscera and Bowels of Dongguisebowon.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2. 24(4).
이준희, 이의주, 고병희.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근거한 氣液代謝와 太陰人 病理病證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12. 24(4).
 19. Baik YS. A Study on Gi(氣) Conversion in 『Somun, Eumyang-eungsangdaero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1).
백유상.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過程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1).
 20. NAVER Encyclopedia of Knowledge. “Metabolism”(Editorial department of

Sehwa Publisher. The Great Dictionary of Chemistry. Paju. 2001.) [cited at 2017 Jan 2]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1460&cid=42419&categoryId=42419>
네이버 지식백과. “대사”(세화 편집부. 화학대사전. 파주. 세화. 2001.)